

# 화순군, 디딤씨앗통장 가입 확대... 취약 아동 발굴

아동 초기 자산 형성 지원 강화  
18세 이후 자립 용도 사용 가능  
한부모·차상위 까지 범위 넓혀  
“아동 안정적 자립 도움 최선”

전라남도 화순군이 취약계층 아동의 초기 자산 형성 지원 강화 사업인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의 확대에 따른 가입 아동 발굴을 위해 5일까지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4일 화순군에 따르면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학업·취업·주거 등 자립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아동이 매달 5만원 이내로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10만원까지 1:2 비율로 매칭 적립해준다.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자립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이 17세 이하 기초수급자 및 보호 아동에서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대폭 확대됐다.

이에 화순군은 미가입 아동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이번 집중발굴 기간 동안 세대별 안내문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시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임경우 가족정책실장은 “집중발굴 기간 운영을 통하여 그동안 미가입 된 취약계층 아동들이 시각지대 없이 모두 신청

하길 바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상 아동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원활한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후원 연계로 아동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목사고을시장 밤소풍’ 개최  
나주시, 7일 시작... 매일 1회

전라남도 나주시가 오는 7일 오후 5시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나주목사고을시장 광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나주목사고을 밤소풍’ 개장식을 개최한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목사고을 밤소풍’은 캠크닉(캠핑+피크닉)을 콘셉트로 한 나주목사고을시장만의 특별한 야시장 이벤트로서 이번 개장식을 시작으로 워터밤·맥주파티 등 다양한 콘셉트의 밤 소풍존이 10월까지 매일 1회 진행된다.

이번 ‘나주목사고을 밤소풍’ 개장식은 7080 공연 및 트로트 공연으로 흥을 돋우고 더위를 날릴 수 있는 댄스파티와 각종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부스를 운영해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광장은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BBQ존과 시장에서 구매한 음식을 준비된 텐트에서 캠핑하는 느낌으로 먹을 수 있는 피크닉존, 개인 장비를 직접 설치해 즐기는 캠크닉존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상세한 일정은 나주목사고을시장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목사고을시장 밤소풍’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나주목사고을시장은 물론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

‘2025 영광법성포단오제’ 성료  
11만여명 관람... 서해안 대표 축제

전라남도 영광군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4일간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과 법성포뉴타운 일원에서 열린 ‘2025 영광법성포단오제’가 전국에서 모인 11만5000여명의 관람객의 열띤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가무형유산 ‘법성포단오제’는 올해에도 용왕제와 선유놀이를 중심으로 단산제·산신제 등 제례행사와 씨름대회, 단심줄놀이, 장포머리감기, 연날리기, 상모돌리기, 전통활쏘기, 재기차기 등 풍성한 전통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전통문화 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칠산바다를 배경으로 풍어를 기원하는 용왕제와 지역 여인들만 참여하는 선유놀이 재현은 법성포의 정체성과 해양문화를 오롯이 담아내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창작 가무극 ‘빛과 바람과 칠산바다’는 법성포단오제의 전통과 정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표 콘텐츠로 주목받았으며 어린이 우리옷 뽀뽀하기 대회·낙화놀이·학생 차예절 경연대회, 청소년 페스티벌 경연대회, 봄날의 단오버스킹 등 신규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가족 단위 관람객과 청소년들에게도 뜻깊은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금년 단오제는 다채로운 체험과 문화공연으로 가족과 이웃이 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며 “법성에서 느낀 정과 흥을 오래도록 간직해주시고, 내내에도 다시 영광 법성포를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요양병원 집중 안전 현장점검  
화순군, 관내 75개소 완료

전라남도 화순군은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을 위해 최근 구북구 화순군수가 직접 화순무지개요양병원을 방문해 기관장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점검은 화재 수신기 작동 여부와 소방 펌프실 관리 상태를 중점 점검했으며 비상 발전기를 시험 가동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시설 내 대응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세심히 확인했다.

화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관내 중점 관리 대상 시설 75개소에 대해 건축물 구조, 전기·소방·가스시설 등 안전 취약 요소 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에 신속한 안내해 바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피드백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중이다.

이번 점검은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 조치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화순군은 이후에도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전력할 방침이다.

구북구 군수는 “하루-이틀 점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요인을 빠르게 찾아내고 조치하는 ‘실행 중심의 점검’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과 더불어 결과에 따른 조치가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행정 역량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화순군이 지난달 30일 능주면 역사관 잔디광장에서 ‘구석구석 목사골 문화파티 출책!’ 행사를 열었다. 문화파티 행사 참여자들이 수채화 책갈피 만들기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 화순군, ‘구석구석 목사골 문화파티’ 성황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이 지난달 30일 능주면 역사관 잔디광장에서 “2025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의 일환인 ‘구석구석 목사골 문화파티 출책!’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4일 화순군에 따르면 능주면 역사관은 능주면에 있는 지역 역사 전시관으로 조선 시대 능주목과 관련된 유물과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과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능주면의 고을 역사와 전통을 알 수 있는 공간이자, 앞 잔디광장은 군민들의 휴식처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이 직접 기획과

운영에 참여한 ‘주민 주도형 문화 기획’으로 진행되어 주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 축제의 본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고 함께 만드는 문화의 힘을 실감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행사는 ‘책을 도시락으로 바꾸는’ 이색 이벤트로 시작되었으며 재즈 피아노 연주와 책 구절 낭독이 어우러진 ‘듣는 즐거움’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손으로 만드는 기쁨’ 코너에서는 △종이 만들기 △수채화 책갈피 만들기 △책 속 요리 체험 △마술 체험 등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아이들과 부모,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했다.

현장에서는 행사 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 잡지를 제작해 지역 문화 기록물로 남길 예정이다.

구중천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재단 앞 공간에서 펼쳐진 이번 문화 프로그램에 많은 가족들이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 담양군, C형간염 무료 항체검사 확대

20세 이상 군민 누구나

전라남도 담양군은 군민의 건강 보호와 조기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C형간염 퇴치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간염은 우리나라 암 사망률 2위 질환으로 이 중 70~80%는 C형간염이 원인이다. C형간염은 자각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국가에서 시행 중인 C형간염 확진검사 지원사업은 56세로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담양군은 검사 대상을 군민 전체로 확대해 보다 폭넓은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검사 대상은 담양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이며 담양읍 보건소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누구나 무료로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C형간염 확진자 가족, 과거 수혈자나

주사기 공동 사용 경험자, 만성 간질환자, 면역저하자, 50대 이상 군민 등은 우선적으로 검사를 권장한다.

C형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주사기 등 의료기구의 안전한 사용, 안전한 성관계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담양군 관계자는 “C형간염은 백신이 없어 예방이 어렵고 무증상으로 진행돼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다”며 “이번 무료 검사를 통해 조기에 질환을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군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